

김주찬 2000안타 - 118... 말형의 여정 시작됐다

KIA 시즌 첫 1군 엔트리 등록

허벅지 지방종 제거 후 재활

퓨처스리그서 홈런·안타 맹활약

지난해 풀타임 못 채우고도 101안타

몰아치기 능력자...가능성 충분

KIA타이거즈 '최고참' 김주찬의 2000안타 도전이 시작됐다.

21년 차 베테랑 김주찬이 7일 두산 베어스와 원정경기를 통해 시즌 처음 1군에 등록됐다. KIA는 이날 황대인을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김주찬을 콜업했다.

이날 복귀로 김주찬의 2020시즌이 막이 올랐고 2000안타 카운트다운도 시작했다.

김주찬은 지난해 12월 왼쪽 허벅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복귀에 4-5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재활훈련에 매진한 김주찬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1월 10일 미국 플로리다로 건너가 스프링 캠프를 시작했다.

캠프에서 연습경기까지 소화했던 김주찬은 KBO 연습경기도 뛰었지만 개막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차분하게 퓨처스리그에서 시즌을 준비하며 컨디션 끌어올린 김주찬은 최근 좋은 타격감을 과시했다.

김주찬은 지난 3일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시즌 두 번째 홈런포를 가동했고, 6일 삼성전에서는 4안타를 터트리는 등 '무력시위' 끝에 마침내 윌리엄스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김주찬은 7일 풀업과 함께 6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김주찬의 방망이는 역대 12번째 2000안타를 노리고 있다. 김주찬은 지난 시즌까지 통산 1881안타를 기록했다. 2000안타까지 가려면 올 시즌 119개의 안타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팀이 29경기를 소화했고, 지난 시즌 김주찬의 안타 수가 101개에서 멈췄던 만큼 쉽지 않은 목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허리 통증으로 100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고, 2016년에는 130경기에 나와 가장 많은 176안타를 때린 적도 있다. 몰아치기에 능한 만큼 올 시즌 2000안타가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김주찬은 자신의 시즌 첫 경기에서 2000안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1-0으로 앞선 2회초에 맞은 시즌 첫 타석은 아쉬운 병살타였다.

나지완의 좌전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루에서 복귀 타석에 들어선 김주찬은 유격수 앞으로 향하는 땅볼을 때렸다. 공을 잡은 두산 유격수 김재호가 2루에 송구하면서 주자 나지완이 아웃됐고, 타자 주자 김주찬도 공보다 늦게 1루에 도착하면서 병살타가 기록됐다.

하지만 1-0의 승부가 이어진 5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2루수 옆을 빠지는 타구로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김주찬은 지난 2017년 친구 이범호와 함께 팀을 이끌며 '우승 주장'으로 후배들의 행거를 받았다. 지난해 이범호가 은퇴하면서 올 시즌 김주찬은 타이거즈의 '말형'이 됐다.

돌아온 말형이 경험으로 팀의 가을잔치를 이끌고 자신의 2000안타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000안타 김선빈

위기가정에 1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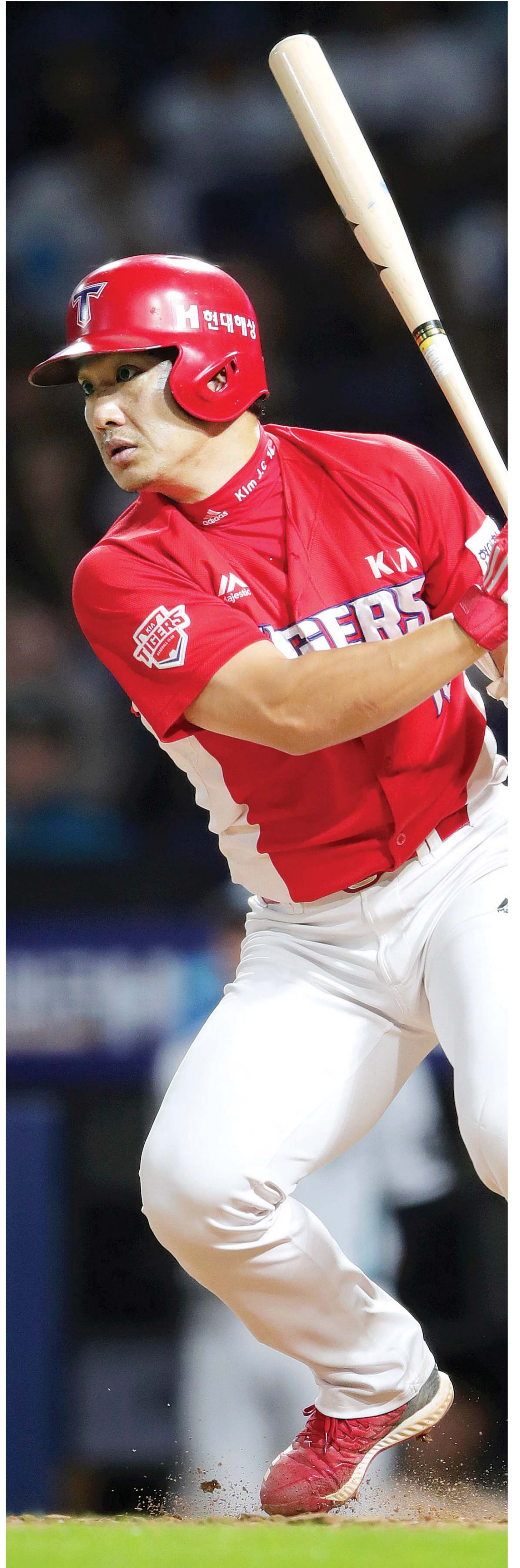
KIA타이거즈 김선빈이 1000안타 달성을 기념하며 위기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선빈은 2008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KBO 리그에 데뷔한 뒤 지난 5월 27일 수원 KT전에서 우전 안타를 터트리면서 1000번째 안타를 만들었다. KBO리그 통산 97번째 기록.

김선빈은 최근 자신의 기록 달성을 기념해 굿네이버스에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위기 가정 아동들의 심리 치료와 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선빈은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야구를 시작했던 만큼 어려운 상황의 어린이들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

역전의 여왕 누르고...천재소녀 '부활'



7일 제주 서귀포 롯데 스카이힐 제주CC에서 열린 '제10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김효주가 우승 축하 물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효주, KLPGA 롯데 칸타타 오픈 우승...연장전서 김세영 제압

첫 우승했던 곳서 4년만에 통산 11승...12일 S-오일 챔피언십 참가

'천재 소녀' 김효주(25)가 부활했다.

김효주는 7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 스카이-오션 코스(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롯데 칸타타 여자 오픈 최종일 18번 홀(파5)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김세영(27)을 제치고 우승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나란히 5언더파 67타를 친 둘은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연장전을 벌였다.

김효주는 먼저 3m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고, 김세영은 더 짧은 2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놓쳤다.

김효주는 고교 2학년 때 이곳에서 열린 롯데마트 여자오픈에 아마추어 초청 선수로 출전해 우승했다. KLPGA투어 무대 첫 우승이었다.

당시 우승으로 롯데와 인연이 된 김효주는 지금까지 롯데 후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진출 이후에도 이곳에서 열린 롯데 주최 대회는 빠짐없이 출전해왔다.

4년 만에 투어 대회 정상 복귀에는 더없이 딱 맞는 무대.

LPGA투어와 KLPGA투어 모두 2016년 이후 우승이 없었고 미국에서도 중위권을 오간 때문에 한물갔던 박한 평가까지 감수했던 김효주의 화려한 부활 신고인 셈이다.

김효주는 이번 우승으로 최고의 선수로 일어설 도약대를 마련했다.

김효주는 KLPGA투어 통산 11승 고지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6000만원.

김효주는 "너무 오랜만에 우승이라 알뜰할하다"면서 "이번 우승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겨울에 혹독한 체력 훈련으로 몸무게를 4.5kg 늘어난 만큼 몸이 좋아졌다는 김효주는 "비거리가 15m가량 늘어난 덕에 경기가 한결 쉬워졌다"면서 "겨울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게 빨리 효과를 봐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김효주는 12일부터 열리는 S-오일 챔피언십과 18일 개막하는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까지 출전할 예정이다. 공동선두 홍란(34)과 한진선(23)에 3타 뒤진 공동 3위로 최종 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

에 나선 김효주와 김세영은 8번홀에서 공동선두에 올라서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지현(23)이 합세해 3파전으로 전개된 선두 경쟁은 마지막 18번홀까지 땀에 손을 땀만큼 팽팽하게 이어졌다.

김효주는 12번 홀(파4) 칩샷 실수로 1타를 잃었지만, 13번 홀(파4) 2m 버디로 다시 공동선두 복귀했고 김세영이 13번홀 버디로 치고 나가자 김효주는 14번 홀(파3)에서 6m 거리 버디를 잡으며 따라붙었다. 김효주와 김세영은 18번홀에서 약속한 듯이 버디를 잡아내 공동선두로 먼저 경기를 끝냈고, 오지현은 두 번째 샷이 병커에 들어가는 바람에 버디 사냥에 실패해 연장전 합류에 실패했다. 2언더파 70타를 신고한 오지현(23)은 3위(17언더파 271타)에 만족해야 했다.

사흘 내리 선두를 달렸던 한진선은 1타를 잃고 4위(15언더파 275타)에 그쳤고 홍란은 2타를 까먹어 공동 5위(14언더파 274타)로 밀렸다.

5언더파 67타를 때린 이정은(24)과 2타를 줄인 이소영(23), 1언더파 71타를 친 최혜진(21)이 나란히 공동 8위(13언더파 275타)를 차지했다.

7개월 만에 공식 대회에 나선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은 공동 45위(4언더파 284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